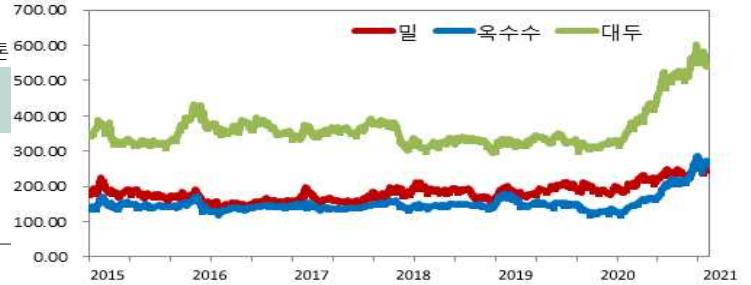


## 밀 선물가격, 수확기의 판매 입력으로 하락

###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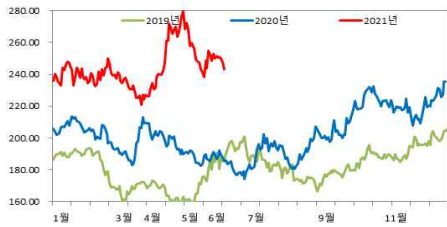
구분	기준일 ('21.06.15)	전일대비	전월평균 ('21.05)	2020 평균
밀	243.06	▼1.9%	269	202
옥수수	262.78	▲1.2%	266	143
대두	538.56	▼0.4%	572	350

단위 : US\$/톤



주1.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 (밀 : 7월, 옥수수 : 7월, 대두 : 7월물) 정산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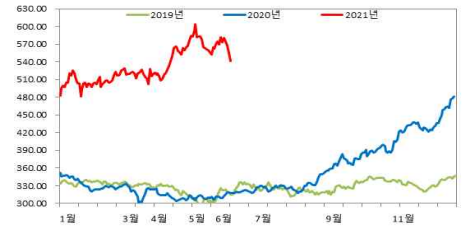
### 밀 선물시장 상황



###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 대두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9% 하락했다. 밀 선물가격은 북반구 수확이 시작된 이후 계절적 입력과 대두와 옥수수의 유출 약세로 하락 마감했다. 미 농무부는 월요일에 미국의 겨울 밀 수확이 전주 2%에서 증가했지만 5년 평균인 15%에 뒤진 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의 저품질 또는 저단백의 겨울 밀 수확이 수출 수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선물이 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미 농무부는 겨울 밀 수확량의 48%를 양호한 상태로 평가해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봄 밀 수확량 또한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37%를 양호한 상태로 평가했다. 이집트의 GASC는 국제 밀 구매 입찰을 취소했는데,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거래자들은 높은 운임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입찰에서 미국산 밀은 제공되지 않았다.

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2%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이달 말 미국 옥수수 벨트에 적실히 필요한비와 더 낮은 기온에 대한 전망으로 인해 화요일 대부분 하락세로 마감했다. 지연된 계약의 경우, 비가 농작물 전망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미국의 주간 작황 등급 하락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미 농무부는 월요일에 미국 옥수수 수확량의 68%를 양호한 상태로 평가해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영 곡물 비축업체인 Sinograin은 6월 18일 수입된 옥수수 3만 7,126톤을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4% 하락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미국 중서부 지역의 곡물 기상 개선으로 생산 전망이 밝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라 하락했다. 추가적인 압박은 NOPA의 예상보다 낮은 월간 대두 분쇄 수치에서 비롯되었다. NOPA는 전월(1억 6,030만 부셀)보다 증가한 1억 6,350만 부셀의 대두를 분쇄했지만 분석가들의 기대치인 1억 6,510만 부셀에는 못 미쳤다고 밝혔다. NOPA는 회원국의 대두유 공급량이 전월 17억 2백만 파운드에서 감소한 16억 7,100만 파운드로, 시장 기대치인 17억 1,300만 파운드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 농무부는 미국산 대두 수확량의 62%를 양호한 상태로 평가해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 관련동향

- 선물의 추가 손실과 농민들의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곱걸 옥수수, 대두 및 밀 수출 프리미엄은 대체로 변하지 않았음.
- 15일 국제유가는 하반기 석유수요 증대 기대감 강화 및 미 원유재고 감소 예상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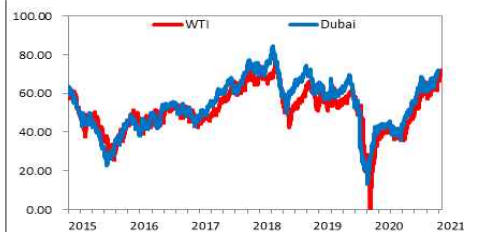
### 곡물 수출가격 (FOB)



### 환율



### 국제유가



구분	곡물 수출가격 (FOB)		구분	국제유가			
	기준일	전일대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 수출가격 (FOB)	밀	281	▼0.7%	환율	원/달러	1,116.4	▲0.5%
	옥수수	297	▼2.9%		달러/유로	1.2121	▲0.1%
	대두	570	▼2.4%	국제유가	WTI	72.12	▲0.7%
	쌀	454	▼0.4%		Dubai	71.79	▼0.3%

1) 밀(US SB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근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21.06.14(수출가격), '21.06.15(환율), '21.06.15(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